



장애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및 요구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박은혜** · 이병인*** · 김현숙****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Park, Eun-Hye** · Lee, Byoung-In*** · Kim, Hyun-sook****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implemented in the infants and toddlers' classes of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who had experience in charge of infants and toddlers'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Seoul.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3 upper categories, 11 lower categories, and 29 main contents were derived.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in charge of infants and toddlers' classes recognized that IFSP was necessary for teachers, infants, toddler and families. However,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the expertise of IFSP. Second, IFSP and IEP have the same roots, but there was no specific standard for programs specialized in the education of young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 writing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persons in charge are changed every year, and there were difficulties due to heavy workload. Third, participants felt skeptical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IFSP as they established and evaluated the IFSP without directly meeting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re was difficulty in inducing participation as the families did not sympathize with the needs of the IFSP. Fourth, it was recognized that the implementation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settlement of the IFSP. In addition, it was hoped that the implementation improvement of the IFSP would serve as a basis for vitalizing the infants and toddlers' classes in parallel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fants and toddlers' classes implementatio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epare effective IFSP implementation plans for infants and toddlers'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Class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

- * 이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서울특별시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 KangdongSongpa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abc@rikse.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겸임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며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추후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여도 발달 특성이나 행동의 출현이 매우 어렵다(Dunlap, 2008). 이에 가능한 빠른 시기인 영아기에 적절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는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개별화가족지원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이하 IFSP)의 제공이 조기개입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병인, 2016; 조윤경, 김수진, 2018).

IFSP란 장애영아와 그 가족의 발달적 요구를 명시한 것이다(금미숙 외, 2009). 구체적으로 가족의 장점, 필요 및 요구, 장애영아의 현행수준, 가족과 장애영아의 목표, 일상지원전략, 서비스 내용, 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리뷰 계획, 전이계획, 부모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이병인, 2012; 최진희, 지은선, 2020). 또한, IFSP는 장애영아의 발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장애영아 뿐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장점과 모든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영숙, 2010). 즉, IFSP는 가족이 스스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이병인, 2012). 최진희와 지은선(2020)의 연구에 따르면 IFSP를 활용한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은 이혼가정들의 발달점수가 향상되었다. 또한, 조화영(2021)은 IFSP를 통해 학부모들은 가정에서의 학습이나 놀이지도 방법의 습득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장애영아 조기개입에서 IFSP의 필요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영아 교육은 오랜 시간 효과적인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은정, 2016; 조혜진, 2022;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홍은숙, 박경옥, 2011).

우리나라 장애영아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근거하여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법제처, 2023). 또한, 제18조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하고,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을 경우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에 교육과정을 명시하여 장애영아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비록 IFSP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제11조 제1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제28조 제1항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중 가족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2022). 특히,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르면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에서(법제처, 2022) 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로 영아학급 확대 및 영아의 가족지원을 위한 IFSP 수립 및 실행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23).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영아는 전국적으로 407명이며, 그중 294명(72%)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 서울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영아담당 교사가 ‘영아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며 IFSP를 실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그러나, 장애영아 교육에 있어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운영 현황은 보통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조혜진, 2022; 홍은숙, 박경옥, 2011). 첫째, 학급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5명 이상 배치되는 곳이 여전하고, 영아학급 소속이 아닌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기도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교실이 없거나 교실이 있다고 해도 규격과 용도가 미흡한 경우가 현저하여 영아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조차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조혜진, 2022).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영아 교육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애, 이정연, 박현옥, 이병인, 2011; 김은경, 노진아, 2018). 특히, 장애영아 교육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해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다(김은영, 이미숙, 한민경, 2020). 마지막으로, 학부모와의 상담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김미라, 2013; 박정은, 2021) 개별 영아에게 적합한 교육지원 내용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영아 관련 선행연구는 장애영아 교육지원 실태(김성애 등, 2011; 백유순, 이명희, 2014; 이민지, 2023; 주정권, 곽승철, 2016; 조혜진, 2022), 영아학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김은경, 노진아, 2018; 박정은, 2021), 학급 담당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김은영, 이미숙, 한민경, 2020)가 있을 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서 실행되는 IFSP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IFSP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IFSP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 영아 담당 유아특수교사의 IFSP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 영아 담당 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IFSP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 담당 교사로 IFSP를 실행해 본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IFSP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첫째, 2022년 기준 서울특별시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IFSP를 실행해 본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

둘째,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

셋째, 장애영아를 위한 IFSP 실행에 대해 고민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교사(예: 연수 수강, 관련 과목 수강, 교사 간 네트워크 참여 등)

넷째,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

이상의 기준에 따라 5명의 유아특수교사를 표집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Age	Total education career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Practical Experience career for IFSP	Certificate	Current Working Institution
A	male	28	3 years	1 years	Special School (kindergarten) regular teacher 2nd class	Kindergarten
B	female	28	3 years	1 years	Special School (kindergarten) regular teacher 1st class	Kindergarten
C	female	29	4 years	2 years	Special School (kindergarten) regular teacher 1st class	Kindergarten
D	female	35	6 years	6 years	Special School (kindergarten) regular teacher 1st class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E	female	39	4 years	1 years	Special School (kindergarten) regular teacher 1st class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연구 참여자 A는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임용 후 서울 S구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첫 발령을 받았다. 근무 3년차에 장애영아를 담당하게 되어 1년 동안 IFSP를 실행하였다. 2023년에는 유치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서울 D구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간 근무하였고 2023년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무 3년차에 장애영아를 담당하게 되어 1년 동안 IFSP를 실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서울 S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4년간 근무한 후 2023년에는 유치원으로 전근하였다. IFSP를 2년간 실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서울 J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근무 경력은 6년, 장애영아 담당교사로 IFSP를 실행한 경력 또한 6년이다. 연구 참여자 E는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서울 J구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근무 경력은 3년이고, IFSP 실행경력은 1년이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IFSP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IFSP에 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개발하였다.

첫째, IFSP 및 IEP와 관련된 선행연구(마유림, 이병인, 김현숙, 2021; 진혜림, 이병인, 강성리, 2021; 조현근, 이병인, 2014; 조혜진, 2022)를 토대로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둘째, 작성된 질문지는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육 전공 박사학위 과정 교사 1인, 석사학위를 가진 유아특수교사 1인의 검토를 통해 1차로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1차로 수정·보완된 질문지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IFSP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유아특수교사 1인을 대상으로 예비면담하였다. 예비면담으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호한 질문 내용을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이 적은 질문을 삭제하는 등 2차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면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면담용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Interview Guide

Category	Question
Participant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der, Age, Place of Work, Career, Work Experience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Work Experience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Certificate, Current Working Institution
Awareness of IF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n did you first find out about the IFSP? • What did you feel while running the IFSP? • What is the needs for an IFSP to be implemented? • Are you proficient or confident enough to practice the IFSP?
Request for IF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support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FSP?

3. 자료 수집

1) 심층 면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사전에 우선으로 연구의 내용, 목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면담의 정확성을 위한 녹음,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는 권리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면담 일정과 시간, 장소를 협의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3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장과 가까운 카페 등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 면담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면담을 하였다. 면담 일주일 전 사전 질문지를 보내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대면 면담의 경우 사전에 연구 참여자와 연락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당 40~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긴장 해소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영아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전반적인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하였고, 면담 후 부족한 내용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 자료를 보충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녹음하였고, 비대면 면담 시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내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2) 자료 전사

면담 후 3일 이내 녹음 및 녹화된 자료를 전사하였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애플리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케이션을 이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2회 반복하여 재확인하며 수정하였다. 전사본에는 면담 날짜, 시간, 장소, 면담 진행자와 참여자 등을 기재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편집 규격은 위쪽 30mm, 아래쪽 30mm, 왼쪽 30mm, 오른쪽 50mm으로 설정하였으며 글자 크기는 10pt,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60으로 설정하였다. 전사 자료는 A4용지 기준 총 46쪽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Bogdan과 Biklen(1991)의 연속적 비교법(consecutive comparison)이 사용되었다. 첫째, 연구자는 최종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주제와 관련된 의미 진술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비슷한 진술을 포괄하는 중심 어미를 도출하였다. 둘째, 주제를 중심으로 비슷한 의미가 있는 진술들을 묶으며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에 맞는 이름을 붙이면서 코딩북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이름을 붙여 최종 코딩북을 완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코딩북은 박사학위 과정 중인 유아특수교사 2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유아특수교사 1인의 검토를 받아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5.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게 녹음 파일과 전사본을 전달하여 정확하게 전사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범주화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연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오류를 줄이고 연구 과정에서 빠지거나 임의로 추가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

둘째, 유아특수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22년 차 유아특수교사 1인, 박사과정 중인 11년 차 유아특수교사 1인, 박사과정 중인 6년 차 유아특수교사 1인 등 3인의 동료와 함께 연구자가 해석한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며 동료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 금지와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시켰다. 특히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면담 전 충분히 안내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IFSP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5명의 유아특수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IFSP에 관한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로 3개 상위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3개의 주요 내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Table 3> Table of Semantic Category

Unit of meaning	Subcategory	Upper categ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rned about the IFSP while working at a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Learning about IFSP at university 	Strange encounter with IFSP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IF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icates that you are receiving special education. Grounds for families to support disabled infants as family members 	The IFSP is a family's first step into the world of specia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rateful program that supports parents and families who lack experience IFSP required for infants directly receiving education 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Programs for early screening and disability prevention 	Thankful IFSP for Families of Disabled Inf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ilding on similar components Operat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IEP 	IEP and IFSP have the same roo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ll out by adding family support to the IEP Prepared by adding a transition support plan to the IEP IFSP and IEP with different targets IFSP and IEP with different goals and directions 	IFSP specialized in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is not a face-to-face education, so it is a formal IFSP Due to the short meeting once a week, formal training and evaluation Recognition that it is not helpful for disabled infants or their families. IFSP not implemented for early intervention purposes 	IFSP is being operated in a formal way, so I have a feeling of skeptic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fficulties due to the family's attitude toward treatment rather than education Families do not understand the needs of the IFSP, making it difficult to induce participation. 	Low family awareness of IFSP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IF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ck of teacher implementation capacity Having trouble finding advice Difficulty due to limited opportunities for capacity building such as related training 	Lack of scholarship support for teachers in charge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SP without standards (guidelines) for creation and execution • Excessive workload as a person in charge of tasks other than the infant classroom • Difficulty in handing over as the person in charge changes every year 	<p style="text-align: center;">Insufficie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pe for vitalization of infant classes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FSP • In order to expand the infant class,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practical infant class operation method. 	<p style="text-align: center;">Expansion of infant classes through implementation of changed form of IFSP</p>	<p style="text-align: center;">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Demand for IFS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ending on the family's needs, it is divided into treatment support/information provision and training/infant class, and operation is desired. • IFSP hopes to fill out only infants receiving face-to-face education 	<p style="text-align: center;">Demand for improvement of infant classroom operation method</p>	<p style="text-align: center;">Settlement in Infant Classroom</p>

1) IFSP와의 낯선 만남

유아특수교사들은 센터에서 근무하며 처음 IFSP를 접하고 IFSP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거나, 대학에서 IFSP에 대해 배웠으나 센터에 근무하며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IFSP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를 하며 IFSP를 만남 센터에 2020년도 처음 와서 영아학급이라는 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되었고..(A 1: 3-4).

대학에서 IFSP에 대해 배움 대학교 공부할 때 처음 들어봤던 것 같고 뭔가 양식을 보거나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센터에 와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볼 일은 없으니까 사실 그냥 들어만 봤다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봤다... 이것은 센터에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B 16: 619-623).

2) IFSP는 가족이 특수교육 세계에 내딛는 첫발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가 장애영아와 그 가족이 처음으로 받는 특수교육의 공식적인 문서이고, 가족이 장애영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 영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 이외에 특수교육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센터에서 개별화를..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

하면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교육적 목표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좀 케어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C 27: 1099-1103).

장애영아를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족의 지원 IFSP는 이 아이가 가족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이 어떤 지원을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고 그 안에서의 발달..(C 28: 1121-1122).

3) 장애영아 가족을 위한 고마운 IFSP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가 양육 경험이나 특수교육적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어떤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며, 조기에 장애를 선별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험이 부족한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고마운 프로그램 아이가 어리면 이제 부모도 어리니까 이제 경험이 적을 것이고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가족을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A 1: 25-28).

IFSP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부모님께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마운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C 32: 1275-1278).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아에게 필요한 IFSP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방문 교육하는 애들의 경우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긴 하지만 이걸 쓰면서 저도 그 아이에 대해서나 뭔가 가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B 16: 638-642).

조기선별 및 장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기에 장애를 발견 혹은 예방하는 차원에서..(E 43: 1749-1752).

4) 같은 뿌리를 가진 IEP와 IFSP

면담에 참여한 모든 교사는 IFSP의 경우 수립될 내용이나 실행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가 없어 IEP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 이에 준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작성 근데 요새는 지금 유치원에 와서 IEP 보니까 큰 차이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121

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IFSP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의 정보들도 IEP에 다 들어가 있고.. 음.. 그냥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A 2: 51-53).

영아의 인적 사항과 현재 학습 발달 수준.. 그리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들어가고.. 평가계획과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E 44: 1772-1774).

IEP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 시기는 이게 사실 IEP처럼 법에 뭐가 있지 않고 사실 그냥 IEP 시기에 그냥 따르는 걸로 생각을 혼자 해가지고 주로 그냥 학기 시작하고 똑같이 30일 내에 최대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사이에 30일 안에 부모님 뵈고 면담하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B 17: 687-690).

5) 장애영아 교육에 특화된 IFSP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 작성 시 IEP 구성요소를 토대로 작성하며 이와 더불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요소로 가족 관련 정보, 가족이 가진 자원, 가족의 관심사, 가족의 우선순위 등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FSP에 전이 지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장애영아가 적절한 유아특수교육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반면 IFSP와 IEP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IFSP는 IEP와 다르게 지원하는 주체가 장애 영아와 그들의 가족이며 가족 구성원이 자녀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설정한다고 하였다.

IEP에 가족지원을 추가하여 작성 문서 구성요소는 그냥 우선은 아이들 기본 정보랑 그리고 발달 평가에서 진단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썼고 그다음에 가족 관련 정보 해서 이제 그런 면담 자료나 이런 걸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랑 또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리고 가족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목표 같은 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 수준 아이 영역별로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 지원..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지랑 그리고 영아 그 목표를 영역별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썼던 것 같고요 이걸 IEP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개가 내년엔 유치원 가거나 하면 전이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치료지원 뭐 받는지 그 정도(B 17: 669-678).

IEP에 전이지원계획을 추가하여 작성 가족이 가진 자원 그리고 가족의 장점 그리고 가족이 이제 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영아.. 해당 영아의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계획 그리고 전이 계획... (D 38: 1520-1522).

대상이 다른 IFSP와 IEP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FSP의 경우 지원을 하는 주체에 가족이 포함이 된다면 IEP에서 가족의 위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일원으로 해당 특수교

육대상자의 발달을 위해 서포트 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E 44: 1764-1766).

목표와 방향이 다른 IFSP와 IEP IEP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의 아이의 교육적인 목표 수립이고요. IFSP는 이 아이가 가족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이 어떤 지원을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고 그 안에서의 발달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C 28: 1120-1123).

6) 형식적인 운영으로 회의감이 드는 IFSP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특수교사들은 장애영아와 그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IFSP를 계획, 실행, 평가하여 IFSP가 장애영아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조기개입이라는 측면에서 IFSP가 의미있게 실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접 만나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IFSP 목표 수립에 있어서는 교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정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기까지가 이제 연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목표 부분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목표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봐도 잠깐 봤었던 아이에 대해서 교육적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C 31: 1263-1268).

주1회, 짧은 만남으로 의미 없는 교육실행, 평가 방문 교육하는 아이들도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보고 하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걸까? 약간 사실 이거는 영아학급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늘 하던 생각이었던 것인데... 좀... 네 아쉬움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B 25: 1015-1018).

장애영아나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의미 없는 실행 내가 매일 보는 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이랑 매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보는 영아들도 있는데 이 목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중략)...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냥 치료 굳센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중략)... 교사의 허무함...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A 10-12: 381-474).

조기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실행되지 않는 IFSP 일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조기 개입 같은 걸 할 때 가정 방문을 해서 한다고 학교 때는 배웠던 것 같은데 센터는 사실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센터에 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특히 통신교육 애들 거를 팔 때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어야 할 텐데 하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B 16: 627-633).

2. IFSP 실행의 어려움

1) IFSP에 대한 가족의 낮은 인식

유아특수교사들은 가족들이 교육보다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치료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IFSP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비협조적이며, 참여를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육보다 치료를 원하는 가족의 태도로 인한 어려움 어머니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조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 어머니들도 교육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게 치료가 더 뭔가 시급한 상황이..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내다 보면 치료가 더 먼저 내가 뒷전이 되는 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D 41: 1654-1657).

가족들이 IFSP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해 참여를 유도하기에 어려움 어머니들이 진단 평가나 이런 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이런 거 처음 문의하실 때 사실 제일 원하는 게 보통 굳센 카드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영아학급에 배치가 되고 IFSP를 짜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 드릴 때는 다 알았다고 하시지만 막상 그걸 준비해야 될 때가 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일단 그런 방문에 되게 비협조적이시고 특히 통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실 저도 이게 번거로우면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저도 좀 지치고 뭔가 제가 죄를 짓는 것도.. 약간 불편하게 하니까 네 좀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B 20: 794-804).

2) 담당교사를 위한 장학 지원의 부족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아담당 교사를 위한 장학 지원의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IFSP 실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역량 부족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IFSP 관련 연수를 듣고 싶어 하였으나 관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교사의 IFSP 실행 역량 부족 유아특수교육이기 때문에 영아 발달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이상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엄마보다 좀 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있었 습니다(C: 258-278).

조언을 구하기 어려움 어디서 조언을 얻어야 될지 모를 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B 24: 964).

관련 연수 등 역량강화 기회의 어려움 연수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없으니까 그.. 제가

지금 그 협회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조기 개입 협회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영아 담당자 IFSP 영아 담당자나 IFSP 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워크숍 같은 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비를 내고 들었어야 했거든요.(B 26: 1064-1071).

3) 미흡한 행·재정적 제도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를 수립하며 관련법이나 기준이 없어 작성이나 실행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영아학급 외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함을 토로하였다. 특히 영아담당 교사가 매년 바뀌어 업무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작성, 실행에 대한 기준(지침)이 없는 IFSP 법에는 명확하게 없으니까 이게 뭔가 결정하거나 할 때 뭐를 무슨 기준을 참고해서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애매했던 것 같고..(B 26: 1029-1031).

지금 가족 지원 계획도 IEP도 마찬가지로지만 가족 지원도 그냥 (교육)청마다 또 지역마다 틀도 다 다르고 개별화처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해서 진짜 이것도 실행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나 이런 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D 43: 1729-1733).

영아학급 외 업무 담당으로 업무의 과중함 사실 내가 영아교사지만 영아교사의 정체성도 있지만 다른 진단평가 업무도 해야 하고 다른 프로그램 업무도 해야 하고 하니까 영아에 온전히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영아만 맡았으면 주에 한 번 어머니들한테 전화해서 아이 발달을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통신교육 자료라도 더 알차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순회도 봐야 되지, 진단평가도 해야 하지 뭐도 해야 하지 교원학습공동체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영아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스템에서 영아만 신경 쓸 수 있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죠(A 14: 570-578).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 인수인계에 어려움 담당자가 한 번에 확 바뀌면서 그런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내년 그다음 해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서로 센터마다 운영이 다 달라지고..(B 20: 785-788).

3. 영아학급의 IFSP 안착을 위한 유아특수교사의 요구

1) 변화된 형식의 IFSP 실행으로 영아학급 확대

유아특수교사들은 효과적인 IFSP 실행을 위해 영아학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125

하며, 현실에 맞는 영아학급 운영 방법이 제안되길 희망하였다.

효과적인 IFSP 실행으로 영아학급의 활성화를 희망 센터 영아학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업 방법이나 영아기에 해당하는 가족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더 탄탄한 IFSP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E 47: 1919-1921).

현실에 맞는 영아학급 운영 방법 제안 필요 (실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IFSP는 다 없어지고 다른 이름으로 그냥 자체 개발된 뭔가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A 10: 394-396).

2) 영아학급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 안착을 위해 영아학급의 운영 방법을 가족의 요구에 따라 치료지원, 정보제공 및 연수, 영아학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IFSP는 이 중 대면교육을 받는 영아만 작성하길 희망하였다.

가족의 요구에 따라 치료지원, 정보제공 및 연수, 영아학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희망 IFSP 그런 시스템을 없애고 치료지원 받으실 분 치료지원 받게 하고 뭐였지 정보가 필요해 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채널 하나 파서 그것도 신청 받아서 거기서 연수 주제들 신청 받아서 거기서 많이 나온 연수로 이제 강사 초빙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원학습공동체처럼 학부모님들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영아학급 와서 유치원 가기 전에 한 번 이런 거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주 1회 해가지고 좀 유치원 체험판 느낌으로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A 13: 503-510).

IFSP는 대면교육을 받는 영아만 작성 희망 굳이 치료만 필요한 애들한테 IFSP를 쓰라 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A 11: 420-42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영아학급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사의 IFSP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5명의 유아특수교사와 심층 면담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IFSP 안착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란 장애영아와 가족이 받는 특수교육의 공식적인 첫 문서이고, 장애영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영아는

해당 장애로 인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어 2차적 장애의 위협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조기개입이 필요하다(이소현, 조윤경, 2004). 또한, 적극적인 양육을 통한 가족기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Dunst & Espe-Sherwindt, 2017; 박현옥, 2009; 이병인,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IFSP에 대한 유아특수교사들의 인식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자로서 IFSP 실행에 긍정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FSP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직전 교육은 큰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직전 교육에서 IFSP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하며 IFSP를 처음 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영아학급 담당교사들이 직전교육 및 현직교육에서 영아학급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체계적이고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되고 있음을 염려한 김은영 외(2020)의 연구와 일치하며, 교사의 전문지식 부족이 조기개입 시행을 어렵게 한다는 조윤경과 김수진, 송영희(201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연수 없이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었다(박소영, 윤송하, 이장순, 2022). 교사의 전문성은 프로그램의 가장 성공적인 상태 즉 최상의 실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Sandall & Smith, 2000). 이에 전문성 있는 준비된 교사 확보를 위한 연수(주정권, 광승철, 2016; 조윤경 등, 2017; 박정은, 2021), 영아학급 담당자의 명확한 직무내용 및 직무 역할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마련(김은영 외, 2020; 박소영 외, 2022)이 필요하며, 나아가 박정은(2021)의 제안처럼 직전 교육에서 장애영아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교사 재교육 및 연수의 내용이 영아교육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IFSP는 IEP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영아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작성 및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담당자가 매년 바뀌다 보니 업무이관이 효율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영아 교육은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1항에 따라 무상교육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와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를 통해 장애영아 교육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장애영아 교육의 어려움은 장애영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의 부재(김은영 외, 2020;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의 잦은 교체와 경험 미숙(정현화, 정은희, 2007; 조윤경 외, 2017; 홍은숙 외, 2010)이라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장애영아 역시 모든 아이처럼 교육과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영아에게 특수교육의 제공을 나타내는 첫 공식 문서인 IFSP가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수립 및 운영의 구체적인 지침이 교육부령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영아 교육의 법적 근거와 실행 기준 마련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는 나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127

추진에서 장애영아의 교육권 보장에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유아특수교사들은 영아학급 관련 업무 이외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영아담당 교사에게 특수교육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순회교육 등 기타 업무가 과다하게 주어진 것이 영아학급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성애 등, 2011; 백유순, 이명희, 2014; 주정권, 곽승철, 2016; 조윤경, 2012; 조혜진, 2022). 따라서, 점진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를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영아학급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IFSP가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아를 직접 만나지 않고 수립, 평가되는 형식적인 운영에 회의감이 들고, 가족들이 IFSP의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통신교육과 가정교육 시 영아담당 교사가 영아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 교육을 계획,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박소영 외, 2022; 조혜진, 2022). 그러나 김은영 외(2020)와 조윤경(2014)은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아를 직접 만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교육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및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미라(2013)와 박정은(2021)은 영아학급에서 직접 교육을 제공받은 부모는 영아학급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영아학급은 장애영아 개개인과 가족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달라져야겠으나(박정은, 2021), 운영 계획은 수혜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이 IFSP의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IFSP 개발 단계에서 부모의 참여도가 낮고 교사와 부모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영숙, 2010; 김은영 외, 2020; 조윤경, 2012). 이명희 외(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영아 부모 중 18.8%가 치료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FSP는 장애영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모와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하나 가족이 IFSP의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는 본 연구 결과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영아학급 활성화 방안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김경민(2020)은 가족지원의 유형 가운데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장애영아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정보와 지원을 찾아 홀로 헤매지 않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의 확대와 IFSP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유아특수교사들은 IFSP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IFSP 실행에 개선이 필요하며, IFSP 실행 개선은 영아학급 운영 방법의 개선과 병행되어 영아학급 활성화를 꾀하길 기대하였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이 다른 조기중재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를 끌어내지 못하므로 영아학급의 지원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다(홍은숙, 박경옥, 2011). 본 연구 결과는 궁극적

으로 영아학급에서 조기개입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영아와 가정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은영 외(2020)는 장애영아 교육에 포함될 내용으로 장애영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적용, 가족중심 접근 지원, 다 영역 전문가들의 협력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애영아에게 적합한 진단평가를 제시하였다. 홍은숙과 박경옥(2011)은 유아특수교육으로의 전환 서비스 및 생애 전반의 지원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영아 발달은 유아들과 질적으로 다르고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법과 방향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영아를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기관 마련과 기관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실천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장애영아 학급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장애영아가 질적으로 균등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유아특수교사들을 중심으로 면담하여 전국의 특수교육센터 내 영아학급 담당 교사의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서울 지역 안에서도 IFSP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 결과가 서울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는 면담을 1회만 실행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영아학급 운영에 대한 서울,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나 인식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인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서비스 관리자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이나 수혜자인 장애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Back, Y. S., & Lee, M. H. (2014). A current state and needs of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the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1), 97-131.
- [백유순, 이명희 (2014).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장애영아 지원 실태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4*(1), 97-131.]
- Bogdan, R. C., & Biklen, S. K.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and Bacon.
- Cho, H. G., & Lee, B. I.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application of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using consensus delphi techniqu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3), 381-405.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129

- [조현근, 이병인 (2013).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적용 탐색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3), 381-405.]
- Cho, H. J. (2022).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support requests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a class for infant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seoul and Kyeonggi provi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 [조혜진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운영실태 및 지원 요구 -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 Y. K. (2012). The perception of service providers on current status of and needs for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children under age 3 with developmental dela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8(1), 39-66.
- [조윤경 (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 요구. **육아정책연구**, 6(1), 39-66.]
- Cho, Y. K. (2013). Connective procedure of disability finding, diagnosis and early intervention service and support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Health and support Welfare Reviews*, 33(1), 300-326.
- [조윤경 (2013).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영아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 **보건사회연구**, 33(1), 300-326.]
- Cho, Y. K., Kim, S. J., & Song, Y. H.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garding under the age of 36 months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literature reviews of the studies published in 2006-2015.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3), 23-53.
-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7).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의 시행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5개 기관 유형 특수교사 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6(1), 35-64.]
- Cho, Y. K. & Kim, S. J. (2018). The Effect of early intervention on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and the Empowering of Parents and Early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3), 59-84.
- [조윤경, 김수진 (2018). 조기개입이 영아의 발달과 부모 및 조기개입 시행자의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8(3), 59-84.]
- Choi, J. H. & Ji, E. S. (2020). The effect of family-centered early intervention on early development of premature infants.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4), 1-26.
- [최진희, 지은선 (2020). 가족중심 조기개입이 이른둥이 영아의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4), 1-26.]
- Dunlap, Linad L. (2008). *An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birth to age five*. New Jersey : Prentice Hall.
- Dunst, C. J., & Espe-sherwindt, M. (2017). Contemporary early intervention models, research, and pract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and delays. In J. M. Kuffman, D. P. Hallahan, & C. P. Pullen (Eds),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2nd ed., pp. 831-849). New

York: Routledge.

Hong, E. S., No, J. A., & Lee, M. A. (2010). Current status and support needs for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gram of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2), 1-22.

[홍은숙, 노진아, 이미애 (20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2), 1-22.]

Hong, E. S., & Park, K. O. (2011). Management status & efficient supports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of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1*(2), 87-114.

[홍은숙, 박경옥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유아 지원현황 및 역할 중요도에 대한 전담교사의 인식과 효율적 지원방안. *유아특수교육연구, 11*(2), 87-114.]

Jeong, H. H., & Jeong, E. H. (2007). Current Status of Inclusive Education and Needs of Support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eonnam Provi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4), 581-614.

[정현화, 정은희 (2007). 유치원 통합교육 실태 및 지원요구 조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581-614.]

Jin, H. R., Lee, B. I., & Kang, S. R. (2021). A Study on Experience of implementing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IEP)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inclusive daycare centers-based 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3), 89-115.

[진혜림, 이병인, 강성리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에 따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아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실행 경험. *유아특수교육연구, 21*(3), 89-115.]

Ju, J. K., & Kwak, S. C. (2016). Class operations and services support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20*(1), 23-42.

[주정권, 광승철 (2016).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교실의 수업 운영과 서비스 지원 실태. *특수교육논집, 20*(1), 23-42.]

Keum, M. S., Kwak, S. C., Kim, H. Y., Park, G. S., Lee, K. M., Lee, H. Y., Jung, E. Y., & Choi, M. S. (2009). *Data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금미숙, 광승철, 김희연, 박계신, 이경면, 이한영, 정은영, 최민숙 (2009). *장애 영유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Kim, E. K., & No, J. A. (2018) Parents' thoughts and support needs for infant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SSE 2018 Spring Conference, 2018*(1), 1-4.

[김은경, 노진아 (2018).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지원요구.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1), 1-4.]

Kim, E. Y., Han, M. K., & Lee, M. S., (2020).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early intervention providers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25*(1), 69-88.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IFSP)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Seoul Region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 131

- [김은영, 한민경, 이미숙 (2020). 장애영아 조기중재 제공자의 경험과 지원 요구, **특수교육논집**, 25(1), 69-88.]
- Kim, K. M. (2020). Qualitative Exploration for Family Support Required by Mothers of Infant with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4), 155-189.
- [김경민 (2020). 발달지체 영아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가족지원에 대한 질적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155-189.]
- Kim, M. R. (2013).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fant classroom in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 [김미라 (2013).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반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서울지역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A., Lee, J. H., Park, H. O., & Lee, B. I. (2011). A study on the supporting free publ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ing center.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3(2), 123-158.
- [김성애, 이정현, 박현옥, 이병인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장애영아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 **지적장애연구**, 13(2), 123-158.]
- Kim, Y. S. (2010). A Study on Needs of 'Support-System for Family with Disabled Child' and political-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Quality Improvement of Life of Family with Disabled Chil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395-418.
- [김영숙 (2010). 장애아가족의 가족지원 제도의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95-418.]
- Korean Minister of Education (2023).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Author.
- [교육부 (2023).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Lee, B. I. (2012). An analysis of survey on family supports and counseling supports regarding related services i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4(3), 217-238.
- [이병인 (2012). 특수교육과 관련된 가족 지원 및 상담 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 연구. **지적장애연구**, 14(3), 217-238.]
- Lee, M. H., Kim, E. J., Back, Y. S., Choi, M. S., & Lee, J. H. (2013). A Study on current realities and needs on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ocusing on the parents' perception-.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3), 217-238.
- [이명희, 김은주, 김성애, 백유순, 최민숙, 이정연 (2013). 부모가 인식한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 실태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3(3), 163-196.]
- Lee, M. J. (2023) *Th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support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 [이민지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H., & Cho, Y. K. (2004). A Survey of current practice and program needs of early

- intervention in Korea.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9(1), 130-151.
- [이소현, 조윤경 (2004).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언어·청각장애연구*, 9(1), 130-151.]
- Ma, Y. R., Lee, B. I., & Kim, H. S. (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writing and implementation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IEP) for beginne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 public kindergartens.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3), 1-26.
- [마유림, 이병인, 김현숙 (2021). 공립유치원 초임 유아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및 실행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1(3), 1-26.]
- Ministry of Education (2023). *The 6th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3).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서울: 교육부.]
- Ministry of Justice (2022).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etc.* Sejong: Ministry of Justice.
- [법제처 (2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세종: 법제처.]
- Ministry of Justice (2022).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etc.* Sejong: Ministry of Justice.
- [법제처 (2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세종: 법제처.]
- Park, H. O. (2009).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early intervention practice and the qualification of early intervention teacher.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2), 117-138.
- [박현옥 (2009). 0-2세 장애영아의 조기중재 실행요소 및 전문가 자격 기준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9(2), 117-138.]
- Park, J. E. (2021). *Mother's perspective on infant class a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박정은 (2021).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S. Y., Yoon, S. H., & Yu, J. S. (2022). Roles and support need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 i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Korean Journal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2(2), 151-173.
- [박소영, 윤송하, 유장순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역할과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2(2), 151-173.]
- Sandall, S., McLean, M., & Smith, B. J. (2000). *DEC recommended practices in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Longmont, CO: Sopris West.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2). *2022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Infant Education Operation Plan*. Seoul: Office of Education.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 운영 계획**. 서울: 교육청.]

<국문 초록>

장애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및 요구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박은혜 · 이병인 · 김현숙

[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에서 운영하는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 경험이 있는 5명의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3개의 상위범주, 11개의 하위범주, 29개의 주요 내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학급 담당 교사는 IFSP가 교사와 영아, 가족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IFSP에 대한 직전 교육에 큰 차이가 있었다. 둘째, IFSP와 IEP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영아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작성 및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또한, 담당자가 매년 바뀌고, 업무가 과중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장애영아를 직접 만나지 않고 IFSP를 수립 및 평가하고 있어 운영에 회의감이 들었고, 가족들이 IFSP의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IFSP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실행방법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IFSP의 실행개선은 영아학급 운영 방법의 개선과 병행되어 영아학급 활성화의 기초가 되길 희망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효율적인 IFSP 실행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유아특수교사

논문 접수(Received): 2023. 08. 09.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8. 09.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9. 09.

<부록 1> 장애영아 IFSP에 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주요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를 하며 IFSP를 만남	IFSP와의 낯선 만남	IFSP에 대한 유아특수 교사의 인식
대학에서 IFSP에 대해 배움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	IFSP는 가족이 특수교육 세계에 내딛는 첫발	
장애영아를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족의 지원		
경험이 부족한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고마운 프로그램	장애영아 가족을 위한 고마운 IFSP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아에게 필요한 IFSP		
조기선별 및 장애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비슷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작성	같은 뿌리를 가진 IEP와 IFSP	
IEP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		
IEP에 가족지원을 추가하여 작성	장애영아 교육에 특화된 IFSP	
IEP에 전이지원계획을 추가하여 작성		
대상이 다른 IFSP와 IEP		
목표와 방향이 다른 IFSP와 IEP		
직접 만나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없는 IFSP	형식적인 운영으로 회의감이 드는 IFSP	
주1회, 짧은 만남으로 의미 없는 실행		
장애영아나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의미 없는 실행		
조기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실행되지 않는 IFSP		
교육보다 치료를 원하는 가족의 태도로 인한 어려움	IFSP에 대해 가족의 낮은 인식	유아특수 교사가 경험한 IFSP 실행의 어려움
가족들이 IFSP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해 참여를 유도하기에 어려움		
교사의 실행 역량 부족	담당교사를 위한 장학 지원의 부족	
조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어려움		
관련 연수 등 역량강화 기회가 적어서 어려움		
작성, 실행에 대한 기준(지침)이 없는 IFSP	미흡한 행·재정적 제도	
영아학급 외 업무 담당으로 업무의 과중함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 인수인계에 어려움		
효과적인 IFSP 실행으로 영아교실의 활성화 희망	변화된 IFSP 실행으로 영아교실 확대 희망	영아학급 IFSP 안착을 위한 유아특수 교사의 요구
현실에 맞는 영아교실 운영 방법 제안 필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치료지원, 정보제공 및 연수, 영아교실로 구분하여 운영 희망	영아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	
IFSP는 대면교육을 받는 영아만 작성 희망		